2021.8.30

KiRi 리 포 트
포커스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 약

○ 2021년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따라 차량 운행량, 의료 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위축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변화의 양상은 다를 수 있음

-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돌파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량 운행량, 의료 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 보험산업과 관련된 활동성에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률, 대면영업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침

○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지표 중 차량 운행량과 의료 이용량은 코로나19 초기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재확산 시에는 감소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개인 이동량의 경우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 초기 급감한 이후 회복세가 미미함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차량 운행량과 의료 이용량 모두 10%가량 대폭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 그러나 최근 차량 운행량 및 의료 이용량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같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음
- 반면 개인 이동량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에도 코로나 재유행 시마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손해율 개선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면 영업채널의 영업환경 악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코로나19의 반사효과로 나타난 수익성 개선은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면영업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백신공급 확대로 인한 집단면역 진행속도에도 변수가 존재하므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2020년 보험산업에 나타난 코로나19 확산의 반사효과는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1. 서론

○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돌파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00명 수준을 기록한 2020년 2~3월 1차 유행을 시작으로 2020년 8~9월 2차 유행을 기록하였고, 2020년 12월 1천 명을 돌파하는 3차 유행 이후 현재 확진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하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임
- 2020년 말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300~6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다시 돌파한 2021년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음
- 또한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8월 16일 현재 접종완료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4차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불확실성이 큼

○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은 차량 운행량, 의료 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 보험산업과 관련된 활동성에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률, 대면영업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4월에는 차량 운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급감한 바 있고, 이후에도 운행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물담보를 중심으로 개선됨
- 의료 이용량 또한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률이 개선세를 보임
  -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일시적으로 소폭 개선된 후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지속함
- 또한 개인 이동량 감소는 대면영업채널의 소비자 접촉 기회를 제한하여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

○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에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변화의 양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나타난 활동성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음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전염병 발병에 따른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활동성 지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활동성 지표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2020년 살펴본 차량 운행량, 의료 이용량, 개인 이동량 등의 활동성 지표 추이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의 영향을 진단해 보도록 함

1) 질병관리청(https://ncv.kdca.go.kr/)

2.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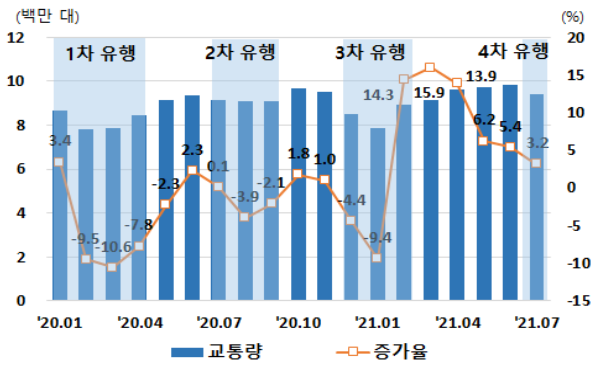
○ 2020년 전국 교통량[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는 코로나19 확산과 부(-)의 관계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21년 들어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1차 유행 시기인 2020년 2~4월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전국 차량 교통량은 2차 유행기인 2020년 8~9월 3% 수준의 감소를 나타낸 뒤, 3차 유행시기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4.4%, 9.4% 감소함
  - 교통량은 겨울철에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의 변화로 나타남
- 그러나 2021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300~600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월평균 교통량인 9백만 대를 상회하였으며, 4차 유행 직전인 2021년 6월에는 980만 대로 크게 증가함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4차 유행에 돌입한 2021년 7월 교통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941만 대로 2020년과 달리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한편, 2020년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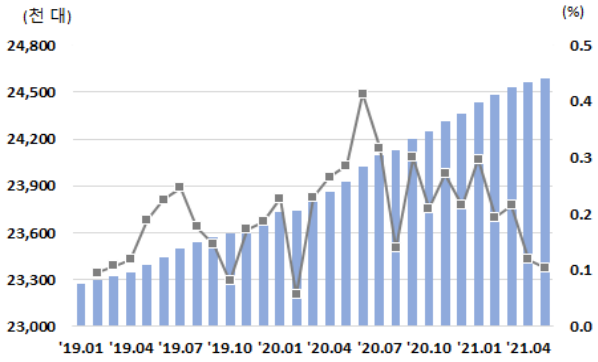
-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한 후 2020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70%가 인하되었고, 이후 30% 인하로 변경되어 2021년 6월까지 지속됨
- 자동차 등록 대수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21년 3월과 4월 0.1% 수준으로 크게 둔화됨

〈그림 1〉 전국 교통량 추이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그림 2〉 차량 등록 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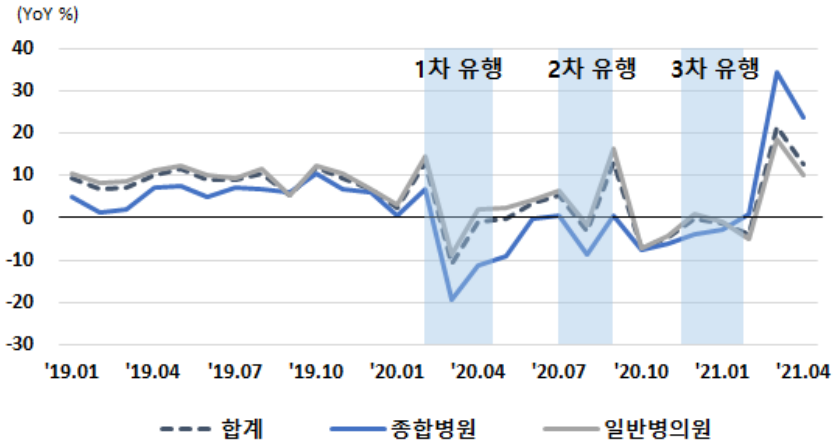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토교통부

2)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ex.co.kr/)을 통해 일별 전국 교통량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의료 이용량 변화를 의료기관별 카드 사용량 데이터[3]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의료기관 총 카드 사용액은 1차 유행기인 202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를 기록한 후 2차 유행기인 2020년 8월에도 3.2% 감소하였고, 3차 유행 전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에도 감소세를 지속함
- 의료이용 감소는 일반병·의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 전체 의료이용 카드 사용량은 종합병원이 5.0% 감소한 반면 일반병원의 경우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종합병원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종합병원이 주로 코로나19 치료에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큰 것으로 알려진[4] 일반병원의 의료이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음
- 2021년 3월과 4월 의료이용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의료이용 카드 사용량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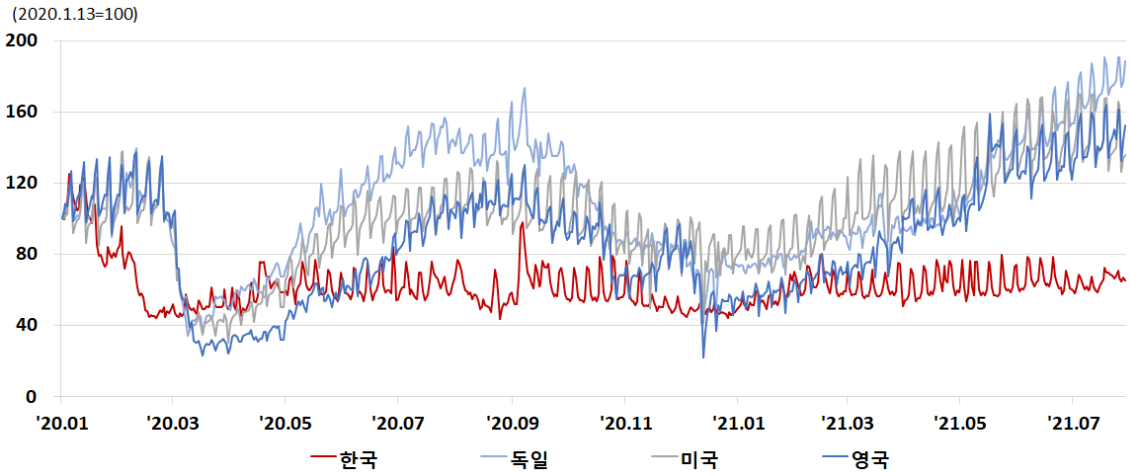
○ Apple에서 제공하는 이동성 데이터[5] 추이를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해외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첫 확산 이후 개인 이동성 지표가 상당폭 개선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이후 개선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Apple은 자사 스마트폰 이용량 데이터를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지표 변화추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각 지표는 2020년 1월 13일의 이용량을 100으로 환산한 상대 수치임
  - 본 보고서에서는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지표를 단순 평균한 수치를 이동성 지표로 활용함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은 의료이용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료기관별 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제공함; http://ecos.bok.or.kr
4) 정성희(2020),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5) https://www.apple.com/covid19/mobility

- Apple이 제공하는 우리나라 이동성 지표(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단순평균) 추이를 보면 2021년 7월 4차 유행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2020년 2월 활동성 수준에 비해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음
  - 2020년 8월경의 2차 유행과 2020년 12월경 3차 유행 시기에는 활동성이 2020년 2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4차 유행이 시작된 2021년 7월에도 활동성이 소폭 하락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독일, 영국의 Apple 이동성 지표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에 비해 상당 수준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함

〈그림 4〉 Apple 이동성 지표 추이(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 평균)



자료: Apple, “Mobility Tends Reports”

3. 시사점

○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지표 중 차량 운행량과 의료 이용량은 코로나19 초기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재확산 시에는 감소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손해율 개선은 재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2020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5조 원을 기록하였고,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2.6조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익성 개선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를 보험영업이익이 상쇄하였기 때문이며,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손해율 개선이 보험영업이익 개선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 생명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안정으로 인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환입액 증가가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및 의료 이용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2020년의 이례적인 수익성 개선은 재현되기 어려움

○ 반면 개인 이동량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에도 회복세가 크지 않고 코로나 재유행 시마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 영업채널의 영업환경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함

- Apple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이동성 지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대면 서비스 기피, 집 밖으로의 이동 기피 현상은 대면채널 설계사들의 소비자 접촉 기회를 축소하고 있으며, 특히 설계사들의 주요 판매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이 쉽지 않아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면 영업채널 영업환경 악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채널 영업성과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 설계사 채널 사망보험(종신보험 포함) 초회보험료 감소(-5.3%)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코로나19의 반사효과로 나타난 수익성 개선은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면영업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백신공급 확대로 인한 집단면역 진행속도에도 변수가 존재하므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2020년 보험산업에 나타난 코로나19 확산의 반사효과는 점차 소멸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